



일본의 민간기업인 남조선철도주식회사가 여수항을 축조한 이후 광주~여수선(155.5km)의 개통을 서두르면서 1930년 12월30일 광주와 여수를 잇는 광여선이 개통한다. 광주와 항구 여수를 잇는 중간기지인 순천은 이 철도 개통으로 순식간에 전남 동부의 교통거점이 된다. 사진은 1920년대 후반 들어서는 여수항 연결 철도.



1930년 10월25일 영업에 들어간 순천역. 순천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광주와 목포를 누르고 1936년 6월26일 남조선철도사무소 유치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철도시대를 열었다.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근대화탐사 <34>



<전남편>

14. 1930년 철도시대를 여는 순천

호남 주요도시 사통팔달 연결... 제1 교통 요지 부상



1930년대 순천수비대 건물과 일본병사. 당시 순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1500명은 토지 751만3300여 평을 소유하고 주요 상업시설을 장악하면서 한국인들과 마찰이 계속됐고, 이들 일본군은 한국인의 반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한창 탈곡중인 주민들 뒤로 남조선철도사무소 설치 이후 조곡동 일대에 들어선 관사 100여 채와 순천역 등 77동의 철도 관련 건물들을 볼 수 있다.

순천은 유감스럽게도 일제, 특히 조선총독부로부터 그다지 높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 1897년 여수군이 분리되면서 일본 본토와의 연결고리인 항구가 사라졌고 내륙 거점은 이미 광주의 몫이었다. 목표는 무안군에서 독립해 1910년 10월1일 일제강점기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인 '부'의 지위를 얻었고, 광주는 1917년 10월1일 일본인 거주인구 250명 이상이면 가능했던 지정면이 되면서 면세 징수, 면제 발행, 일본인과 한국인 각각 2명씩 상담역 선정 등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났다. 제주를 제외하면 당시 전남도 내 인구 3위의 순천은 그러나 1930년까지 보통면에 불과했다. 오히려 여수면은 1923년 2월15일 광주보다 6년 늦지만 지정면이 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30년을 맞이하면서 순천은 광주·여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931년 4월1일 광주면과 여수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하자 7개월만인 같은 해 11월1일 순천면도 읍이 된 것이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철도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일본의 민간기업인 남조선철도주식회사는 여수항을 축조한 이후 광주~여수선(155.5km)의 개통을 서둘렀다. 하지만 광주에서 여수를 가기 위해서는 순천을 필연적으로 거쳐 갈 수밖에 없었다. 노선은 여수항에서 서북향 순천을 통과해 보성, 능주, 화순을 거쳐 광주 송정리에 도착하도록 돼 있었다. 1930년 12월30일 개통된 광여선을 통해 인접 군·면을 연결하는 버스까지 운행되면서 순천은 순식간에 교통거점이 됐다.

1931년 출간된 전라남도사정지에서는 순천을 경유하는 2등 도로로 광주~여수, 순천~경남 하동, 순천~보성~보성~장흥~강진~해남~진도에 이르는 남연안선, 나주~장흥선, 광주~담양~곡성~구례~순천, 광주~영광

광주~여수 중간기지로 광여선 개통후 거점지로 1936년 철도사무소 유치하며 지역 철도 업무 주관 관련 건물 들어서고 인구 급증하며 도시 발전 촉진

등 6개 노선을 소개하고 있다. 1930년 이전에 순천을 지나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거의 완비됐음을 알 수 있다. 이 도로들을 통해 사통팔달로 버스가 왕래했던 것이다.

그리고 1936년 12월26일 이리에서 순천을 이어 광여선을 통해 여수와 연결하는 전라선 이 개통하면서 순천은 화려한 '철도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철도 노선은 산업적 필요뿐만 아니라 군사적 의의도 지니고 있었는데,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여수와 시모노세키 간의 거리가 부산에 비해 큰 차이가 없고, 운임도 동일하기 때문에 조선의 미곡의 보고인 호남과 일본 간의 거리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을 통해 편리해진 군대수송 등 군사적 이점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급증하는 철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호남지역에 철도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대상으로 광주와 순천을 거론했다. 이에 순천주민들은 철도사무소 직원 주택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중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유치전에 나서고 결국 1936년 6월26일 남조선철도사무소가 순천에 설치됐다.

1936년 7월18일자 동아일보는 "이후 5년 내 순천은 대전보다 더 성장하며 조선 4대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토지 브

로커들이 발호하고 있다"고 당시의 들뜬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순천은 이 한 번의 유치전 승리로 70년 이상 호남지역 철도 업무를 관장했고, 지난 2006년에서야 전남지사, 광주지사, 전북지사로 분리되면서 그 위상이 약화됐다.

철도사무소의 순천 설치에 음성 주변에 한정됐던 시가지 영역을 키우는 결과도 낳았다. 동천을 건너 지금의 조곡동 일대에 관사 100여 채와 순천역 등 77동의 철도 관련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 결과 152세대의 인구가 유입됐다. 신도심이 탄생한 것이다. 1936년의 인구 증가율이 무려 9.72%로 정점을 기록할 정도로 이 철도는 순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6년 10월에는 철도 종사자들을 위한 철도진료소(1982년 말 폐쇄)까지 생겨나면서 도립순천병원, 알렉산더병원에 이어 종합병원만 3곳이 운영되는 등 부수적인 성과도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렇듯 성장하는 순천을 일본인은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1932년 9월24일자 동아일보는 일본인 1인당 토지소유 규모가 한국인의 그것에 비해 10배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인 11만8000명이 소유한 토지는 5069만4000평, 일본인 1500명이 소유한 토지는 751만3300여 평으로, 한국인 중 자작농은

1200명에 불과하고 절대 다수인 11만6000여 명이 소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 내 가로망 역시 주로 일본인 거주 및 상업지역인 중앙동, 남내동, 동외동에 집중돼 있고 한국인 거주지는 도로가 좁아 소방차도 출입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광주, 목포를 비롯한 한국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의 차별 양상이 순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의미다. 1937년에는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1915년과 1916년 각각 설립돼 운영되던 매산 남·여교가 폐교조치된다.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이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일제의 압박이 극에 달했다는 점, 미국인 선교사들의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고등교육시설이 사라지게 됐다는 점 등이다. 이듬해인 1938년 고등교육시설인 순천공립농업학교가 들어서고 1935년 설립된 순천공립농업학교가 같은 해 승격한 것은 이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의 성장과 연이은 일본인들의 진출은 순천의 도시정비를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목포, 광주보다는 뒤졌지만 1930년대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며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안겼던 동천 개수공사에 착수하고, 우물물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던 일본인 주도의 상하수도 공사 등이 완료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윤회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3만원으로 떠나는 제주도여행

매일 광주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로 목포항까지 편안하게!
국내최대 씨스타크루즈호 타고 제주까지 안전하게~3만원으로 떠나세요.

광주↔목포 셔틀버스 + 씨스타크루즈호

광주출발 06:40 광천터미널 맞은편
목포출발 21:30 여객터미널 주차장

*1인 편도요금이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씨스타크루즈호

2013년

선상해맞이 축제

고객감사 할인

20,000원 → 10,000원

선착순 45명 전화문의만 받습니다.

광주출도착 제주도 2박3일 139,000원

1일자 도두봉 트래킹, 용두암 용연, 노을언덕 무인카페

2일자 오설록, 생각하는 정원, 서커스월드, (현지직불) 서귀포유람선, 롯데호텔정원, 올레길

3일자 선녀와나무꾼, (현지직불) 몽골리안미상소 or 매직쇼, 조랑말 승마체험, 제주허브동산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 셔틀버스, 왕복선박료, TAX, 차량, 일반호텔(5-6인실), 일정표내 입장료, 식사(중식2회,조식2회)
불포함사항: 가이드 팁, 개인비용, 현지직불관광, 자유식식
금, 토 출발시 20,000원 추가 / 2인실 이용시 30,000원 추가

씨월드 고속훼리(주) 우수대리점. 제주배닷컴 www.jeube.com 1644-2261